

[시티 & 피처]

리모델링으로 다시 난 염주체육공원 광주실내수영장

광주 유일 국제 공인 풀 시설·수질 올림픽 수준

광주 도심에서 후텁지근한 무더위를 피할 곳은 많지 않다. 고유가와 한층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으로 인해 원거리 유명 피서지를 찾는 것은 더 어렵다.

그렇다고 끙끙이는 집에 갇혀지내기는 더 힘들다. 시원한 물로 더위를 씻어내고 활력도 충전할 수 있는 장소는 없을까. 광주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광주실내수영장은 이런 고민을 하는 시민들에게 안성맞춤인 곳이다. 사설 수영장을 찾는 밭길이 이어지자 광주시도시공사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몇 안되는 전천후 수영장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제88회 전국체전을 치러내기 위해 무려 26억원을 들여 리모델링 작업을 마쳐 국내 최고의 수질관리시스템을 갖췄다.

이 때문에 수영장의 핵심 평가기준인 수질관리에서도 내로라하는 국내 수영장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동안 수질관리를 위해 물에 오존과 약품을 섞어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 상태의 수질을 느낄 수 있는 '혼합살균제 발생시스템'을 채택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전기·화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소금물을 전기분해해 수영장 안의 물을 살균·정수하는 최첨단 시설이다. 지난해 광주 전국체전에 출전해 5관왕을 달성한 박태환 선수는 "물이 너무 깨끗해서 좋았다. 편안한 경기장 환경 덕분에 기록달성을 도움이 됐다"고 광주실내수영장을 높게 평가하기도 했다.

광주실내수영장의 깨끗한 수질과 시설이 입

소문을 타면서 어린이들의 수영 체험학습장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올 상반기 화정남초등학교 등 30여개 학교 8천여명의 학생들이 밭길이 이어졌고 하반기에는 1만여명의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예약했다.

수영장을 찾는 밭길이 이어지자 광주시도시공사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몇 안되는 전천후 수영장이기도 하다.

요원 4명 상주 안전관리 심혈

탁구장·헬스장 등 무료개방

어린이 수영 체험학습장 인기

여름방학 특강반 신설 접수중

주기 위해 '여름방학 수영 특강반'을 신설했다. 운영기간은 이달 25일~8월31일까지 38일간으로 현재 접수종이다.

광주실내수영장은 광주에서 국제 공인 규격을 갖춘 풀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대한수영연맹이 인정한 2급 공인시설, 국제공인 2급 인증을 받은 경영풀(50mx25mx2m) 10레인과 다이빙장(25mx25mx5m)을 비롯해 어린이·유아들을 위한 유아풀장(5mx25mx0.6m)까지 갖추고 있다. 시설면에서도 500명을 동시 수용



할 수 있는 여력이 자랑이다.

또 이용객에게 탁구장과 헬스장을 무료 개방해 지역 동호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제88회 전국체전 수영 경기장으로 사용됐으며, 현재는 광주시, 전남도 수영대표 선수들의 전용 훈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철저한 안전 관리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는 광주 실내수영장의 강점이다. 수영 강사 2명을 비롯해 인명 구조 자격증을 갖춘 2명의 안전요원 등 모두 4명이 상주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꼼꼼하게챙기고 있다.

수영장 회원들을 관리하는 6명의 간사들은 모두 태극마크를 달고 뛰던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다. 수영장 회원 등록기간은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회원 프로그램은 3일 강습, 3일 자유수영 형태로 운영된다. 성인 월 5만2천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7천원이다. 당일 이용도 가능하며 요금은 성인 4천원, 청소년 2천500원, 어린이 1천원이다.

여름방학 수영특강반(유치원생 제외)의 강습료는 5만원이며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부터 각 1시간씩 운영된다.

김영진 광주도시공사사장은 "광주실내수영장은 전국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없는 편안한 환경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실내수영장의 깨끗한 수질과 시설이 입



소금물 전기분해방식으로 수질을 개선한 광주실내수영장 내부. 위는 수영장 전경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등산 등산로 철제 시설물 철거

자연친화 목재 시설로 교체 낙뢰 위험 제거

낙뢰 위험이 제기돼왔던 무등산 등

산로 주변의 철제 시설물이 자연친화

적 목재 시설로 교체된다.

광주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는 22일 "탈방로의 낙뢰위험이 큰 산 능선에 설치된 철제 계단과 난간, 다리,

울타리 등 노후 시설물을 비롯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들을 자

연친화적인 목재시설로 교체키로 했

다"고 밝혔다.

이들 철제 시설물은 주로 무등산

새인봉과 덕산골 등에 설치돼 있으며

철거 대상은 계단 6곳과 다리 3곳, 난

간 9곳 등 모두 18곳이다.

특히 암반으로 이뤄진 새인봉 코스

는 계단과 다리, 난간 등 철제 시설물

이 많아 낙뢰에 따른 탈방객의 안전

사고 등 인명피해가 우려돼왔다.

또 지난 1995년에 설치된 원효사

지구 산장호텔 앞 철조망(166m)

은 이달 말까지 철거하고 주변 환경을

옛 모습으로 복원키로 했다.

중심사 지구 토끼등 등산로 입구의

철제 다리 1곳은 내년까지 교체할 예

정이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탈방로를 자연친화적인 돌과 목재로 정비해 기상악화에 따른 등산객의 낙뢰 피해 우려를 없애고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북한산과 수락산에서는 낙뢰에 따른 감전으로 등산객 5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고마워요... 지하철 수호천사"

광주지하철 이용 도우미 서비스 큰 호응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지난 3월

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한 '지하철

수호천사'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

고 있다.

22일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승객을

위해 사회봉사요원(공익근무요

원)과 직원 등이 지하철 이용을 도

와주는 '지하철 수호천사'를 운영

하고 있다. 역에 들어서는 순간부

터 열차 탑승은 물론 하차와 출구

를 나설 때까지 전 과정을 무전으

로 네트워크된 수호천사 요원들

는 어려움을 먼저 알고 도와줄 수 있게 됐다"며 뿌듯해했다. 이처럼 광주지하철의 '수호천사'가 새로운 고객서비스 모델로 떠오르면서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다른 공공기관의 문의도 줄을 잊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수호천사'가 지하철의 공익성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승객 편의와 사회 공헌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하철 1일 무임 승차 인원 1만3천여명 가운데 장애인 이용객은 2천500여명에 달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 지방세 체납 해소 초강경 조치

예금 압류·부동산 공매

광주시가 지방세 체납 해소를 위해

고액 체납자의 예금과 금융

채권, 부동산 공매 등의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고액 체납자의 예

금, 적금계좌 264개, 26억원을 압류한

데 이어 급여생활자 127명에 대해 급

여압류 사전 예고 통지를 보냈다.

시는 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서도 체납하고 있는 378명에 대한 부

동산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고액 체납자 14

명의 출국금지에 이어 이달안으로 5

천만원 이상 체납자 20여명도 법무부

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말 소송을 통해 체납

자 2명으로부터 취득세 1억1천만원

을 징수하기로 했다.

현재 광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81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달 말

까지 88억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

는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

도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공매, 출금 등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

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우수 응급의료기관 7곳

광주시 7억4천만원 지원

광주시는 지난해 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전남대병원 등 광주지역 7개 응급의료기관에 국비 7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비를 지원받는 우수 의료기관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상 각 2억원), 하남성심병원(1억원), 미래로21병원과 동아병원, 광주현대병원, 신기병원(이상 각 6천만원) 등이다.

시는 지난해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응급의료기관 25곳을 대상으로 시설·인력·의료장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사업비는 응급환자 진료체계 개선에 사용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